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재탄생

23일 교도소 교회당서 개관식 5년간103억원 투입 리모델링 건물 6동 독창적 전시물 설치 교정본부·영상자료원 협약도

옛 장흥교도소가 5년여 간의 리모델링 끝에 연말 지역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장흥군은 오는 23일 옛 장흥교도소 교회당에서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장흥교도소 시설을 문화예술 교류공간, 교도소 체험공간, 영상촬영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이다.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 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에

걸쳐 103억원이 투입됐다.

사업을 통해 옛 장흥교도소 건물 6동을 리모델링해 △영화로운 책방 △글감옥 △접견체험장 및 장흥교도소 아카이브 △교정역사전시관 등 독창적인 전시물을 제작·설치했다.

아울러 장흥군은 개관 시기에 맞춰 법무부 교정본부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와의 협약 주요 내용은 전국 유일의 옛 장흥교도소 내 조성된 교정역사전시관의 운영, 옛 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 조성에 필요한 자료 발굴 및 연구지원, 대국민 홍보관련 콘텐츠 협조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한국영상자료원과의 협약 주요 내용은 옛 장흥교도소 연무장을 리모델링한 영화로운 책방에 지역미디어라이브러리를 구축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지역미디어 라이브러리는 한국 고전 영화, 영화대본 시나리오를 서울에 있는 한국영상자료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장흥교도소 영화로



5년여 간의 리모델링으로 지역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옛 장흥교도소. 장흥군 제공

운 책방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23일 치러질 개관식에는 식전행사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본행사인 경과보고,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의 새로운 이름 빼빼용Zip의 비전발표, 상패 수여, 성공발전을 기원하는 퍼포먼스, 식후 행사로 테이프커팅, 시설관람 등이 진행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프리즌호텔, 장흥영상스튜디오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여수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31일까지 납부... 미납 시 3% 가산

여수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6만 8692건에 대해 총 111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비 3억6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전년 동월보다 차량등록 1200여대 증가와 자동차세 연납 차량 감소로 분석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부터 12월 사이 신규·이전 등록·폐차 말소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10만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12월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부과세액의 3%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납부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061-659-353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이후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광양읍,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10개반 180명

광양읍 주민자치위원회는 12월18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상반기 광양읍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세부 프로그램은 △생활요가 초급반(15명) △생활요가 중급반(15명) △순가락난타(20명) △팬플루트(15명) △캘리그라피(20명) △풍물신규(30명) △퓨전장구(10명) △라인댄스(15명) △스마트폰 활용 및 영상제작 등(20명) △웃음교실(20명) 등 총 10개 반에 18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광양읍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각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1인당 1개의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수강생 정원의 30%는 18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광양시청 통합예약 시스템(www.gwangyang.go.kr/reserve/)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수강생의 70%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광양읍사무소 총무팀에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2025년 상반기 광양읍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이고 프로그램별 학습 도구 및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광양읍사무소 총무과 총무팀(061-797-4919)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도심항공교통 비행시연 고흥군, S4 기체 활용 실증

고흥군은 최근 항공산업 인프라가 집적화된 고흥만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2024 도심항공교통(UAM) 비행시연'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개최된 비행시연 행사에는 공영민 고흥군수와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산학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UAM 드림팀(SKT·한화시스템·한국항공공사)이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 기체 S4를 활용해 세계 최초 통합 실증을 선보였다.

시연에서는 S4 기체가 약 20분간 안정적으로 비행했으며 기체, 배터리, 교통관리시스템 등 UAM 운용에 필요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상용화가 멀지 않음을 알렸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에는 국내 최초 도심항공교통 배터리포트와 실증시설이 조성돼 있고 지난 11월에는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정부의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계획에 맞춰 고흥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 구축 공모사업에서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 시스템 평가기반 구축 △비행시험장 안전성 향상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비행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00억원을 확보, 이를 바탕으로 첨단항공산업 주도권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지난 14일 재원산업과 여수탱크터미널 직원 40여명이 여수시 광림동 6세대에 연탄 1000장 등을 전달했다. 여수시 제공

재원산업·여수탱크터미널, 취약계층에 연탄 봉사

연탄·등유 교환권·백미 등 마련

여수시 광림동은 최근 재원산업과 여수탱크터미널 직원들의 후원으로 저소득 6세대에 연탄과 등유 등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진행된 봉사에서는 두 회사

의 여직원 모임인 동심회와 사우회 일동이 모은 후원금 270여만원으로 연탄 1000장과 등유 교환권, 백미, 라면 등을 마련, 두 회사 직원 40여명이 모여 동절기 난방 취약계층에 연탄을 손수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회사 관계자는 "기분 좋게 땀 흘린 하루였다"며 "타인을 위해 보

람 있게 주말을 보낸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정종민 광림동장은 "많은 봉사자가 활기차게 연탄을 전달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연탄 봉사에 참여해 주신 재원산업과 여수탱크터미널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재해예방 신규사업 예산 418억 확보

기상이변·자연 재난 선제 대응

고흥군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예방사업 관련 총 5개 지구에 418억원(국·도비 230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급경사지 붕괴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거 재해가 발생

했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해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 5개 지구는 △금산면 대흥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321억원) △과역면 백일(원주도), 풍양면 봉양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사업 2개 지구(50억원) △남양면 왕주, 금산면 월포하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2개 지구(57억원) 등이

다.

대흥1지구의 경우 2025년 기본 및 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4개 지구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재해예방사업은 재해 발생 후 복구 대비 3~4배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며 "선제적인 재해대책 추진과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해 예방사업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